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9월 21일(일) 제1557호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9월 20~21일 'CGN 후원 및 약정 행사'
CGN 창립 20주년 사진전, 후원모금방송

CGN 후원 및 약정 행사가 9월 20일(토)과 21일(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누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796-2243) 또는 CGN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참여하면 된다. 기존 후원자 증액도 가능하다. 자녀와 가족, 전도대상자 이름으로 CGN 후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서는 'CGN 창립 20주년 사진전'이 열린다. CGN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부 캠퍼스에서는 '찾아가는 가족사진관' 이벤트가 열린다. CGN 직원들이 직접 가족사진을 찍어준다.

후원모금방송도 한다. 본방송은 9월 20일(토) 1부 오전 8시 20분, 2부 9시 10분, 재방송은 21일(일) 1부 오전 6시, 2부 오전 10시 30분, 삼방송 21일(일) 오후 22시 20분 방영한다. CGN TV 채널과 기독교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후원모금방송은 김재원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김효진이 사회를 본다. CGN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알리고, 비전과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CGN과 동역해 온 후원자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소개한다.

올해는 CGN 개국 20주년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CGN은 6개 해외 지사(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를 세우고 선교의 지평을 계속 넓혀왔다. 양질의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CGN은 광고 없이 순수한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CGN 전진국 대표는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CGN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서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40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10월 23일까지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축제 캠페인, 특별순예배, 온누리사역축제(OMC) 개최

온누리교회의 지난 40년 은혜를 돌아보는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3일(목)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40주년 축제 캠페인', '특별순예배', '온누리사역축제(OMC)' 등을 개최한다.

'40주년 축제 캠페인'은 10월 23일(목)까지 매주 '은혜의 40년', '작은 시작', '부흥의 기억', '선교와 나눔', '다시 새롭게', '세대를 잇다', '비전의 선언'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9월 중순 '40주년 기념 웹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팟캐스트 라이브, 토크쇼, 부흥회, 마라톤 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관련 기사 6면).

'특별순예배'는 9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열린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요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1주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2주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3주 '일대일은 온누리에 주신 선물입니다', 4주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5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형도'를 주제로 순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역사와 철학, 비전을 공유하는 '2025 온누리사역축제'(OMC)는 10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21일(화) '교회, 복음으로 서다!', 22일(수) '교회, 문화로 퍼져가다!', 23일(목) '교회, 선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강의 및 패넌토의, 선택강의, 저녁집회 등을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김경훈 집사(글로벌 AI기업 한국 사장), Christopher Wright 박사(랭함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Nelson Jennings 박사(GMLF 이사장), 유병국 선교사(WEC),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등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0월 12일(일)까지(사전등록 마감)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저녁집회는 따로 참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각 캠퍼스 본당에서 실시간 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 <지금 여기, 사도행전> 출간 감사예배도 드렸다. 지난 9월 18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 이날 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리더십, 편찬위원, 사역본부 리더십 등이 참석했다.

등록 문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행사 문의: 02-3215-3234(3122, 35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0월 4~5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을 10월 4일(토) 오전 7시부터 5일(일) 오후 6시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한다. 주차증 발급 차량 중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동반 차량 외에는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서틀은 일요일에만 운영한다.

문의: 02-3215-3434

/ 박지혜 기자

하비스트 추석연합수련회 'Renewal'

9월 말까지 추석선물세트 등 물품 후원 모집

올해 추석연합수련회 하비스트는 'Renewal(다시 새롭게)'을 주제로 온누리M미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흥을 경험하는 집회로 준비된다. <에스겔> 37장을 주제로 네 번의 집회가 이어진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찬양팀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찬양을 한다.

하비스트 첫째 날(10월 4일)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주제 말씀을 선포한다.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10월 5일) 오전에는 인도네시아 마주 목사(안디옥교회 평택교회 책임자)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모든 예배자가 성찬에 참여한다. 저녁집회에는 영어예배 해롤드 김 목사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마지막 날(10월 6일)에는 온누리M미션 담당 김태완 목사가 마른 뼈의 환상에서 생기가 불어와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다. 피날레는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상황과 소망, 비전을 적은 리뉴얼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 장식한다.

한편, 하비스트 물품 후원을 9월 말까지 받는다. 추석선물세트, 한국전통물품, 국제문화축제 시상품, 학용품 등이 필요하다.

재정후원: 하나은행 573-910010-57804(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

물품 보내는 곳: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하비스트담당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 '사르밧 프로젝트'

2025 사르밧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는 순은 10월 19일(일)까지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을 봉헌하면 된다. 쌀 20kg 한 포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헌금하면 된다. 헌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재해서 보내야 한다. 개인 참여 성도들은 헌금을 송금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확인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도 모집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이다.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 박지혜 기자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아이 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 번은 아이 성 전투에서였고, 또 한 번은 기브온과의 동맹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늘 영적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낱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께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땀을 대로 땀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3-6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막강했던 여리고와 아이 성까지 무너뜨리고 승리한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전해지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은 연합군에 합류하기보다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은 다음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의 규정을 이용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신 20:10).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신 20:15).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입

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대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안 해도 되고, 율법의 조건에도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선약과 같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매력적인 선약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서 영적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벧전 5:8).

“영적 긴장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둘째, 영적 긴장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 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14~15절).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약을 맺자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분별력을 가진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완전히 항복하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종과 노예와 땅을 얻는다는 욕심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영적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면 실수하게 됩니다. 더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

다. 아이 성의 교훈을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자만함이 결국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을 풀면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고, 하나님 뜻이나 계획보다 나의 뜻이나 계획을 주장하는 게 실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단이 교묘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노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여쭙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잠 3:5~7).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과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하고 철저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법을 알아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다고 했습니다. 죄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안에 자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과 우리를 미혹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인기에 무너지집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 약점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습을 잘해야 한다”

셋째, 수습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 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 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길은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19~21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회중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후회만 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

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수습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달았을 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수와 실패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사단의 율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한 가지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과 죄를 책망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종살이를 해야 한다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들을 군사로도 쓰지 않았습니

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실수를 했지만, 더는 이 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 분열 속에서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수습을 잘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분께 항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브온이 아이 성보다 큼니다.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기브온에 산당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1천 마리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습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재물,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훈삼아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시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자기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네 신앙은 너와 네 하나님 사이에서만 지켜라.”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정부가 교회 안에서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의 자유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신념을 표현하고 살아갈 권리까지 지켜주는 것일까? 종교의 자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모두가 있다. 예배의 자유란 무엇을 믿을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더 큰 권리의 일부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란 단지 마음속으로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만약 사람을 단지 예배의 자유에만 묶어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사람들의 마음속, 집 안, 혹은 교회 안에서 무엇

을 믿을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정도만 보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를 보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 믿음을 사회에서 드러내고 나누며 살아갈 자유는 없다. 즉 예배의 자유만 있고, 종교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앙인들은 실제로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헌법을 만들 때 단순히 예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전체를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며,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기 신념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최근 정치적으로 뜨거운 도덕적 문제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포르노, 낙태, 성소수자(LGBT) 문제 같은 것들이다. 그 말의 속뜻은 이렇다.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근거로 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심지어 의견을 말할 권리조차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2등급 수준의 낮은 권리로 취급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즉 정부가 새로 만들어낸 소위 ‘권리들(예를 들어 낙태권이나 동성 결혼)’보다 못한 권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종교의 자유는 정부가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다. 많은 철학자가 말했듯 그것은 자연권,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리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다. 헌법과 권리장전을 작성할 때 어떤 권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그 권리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는 그중 하나이므로 정부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공적 광장에 속한다. 공적 광장은 곧 사상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공적 광장은 다양한 생각들이 경쟁하고, 그중에서 더 나은 생각이 선택되는 곳이다. 물론 어떤 생각들은(종교적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라면 서로 다른 생각을 접하고 나서 그중 어떤 것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서를 더 좋게 만드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공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침묵시키려 하지

않는다. 생각들이 자유롭게 돌고 퍼져야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생각들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생각들이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각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마음속 깊이 자리한 ‘영원을 향한 갈망’에도 응답한다.

물론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종교의 자유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그 한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종교인들은 자기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모두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며 모든 사람의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공적 광장에 속하며, 그곳은 사상의 시장이다.”

/ 사라 스톤스트리트(Strong Women 팟캐스트 메인 호스트)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전통 종교

팔자, 인연, 명복: 우리 신앙에 스며든 낯선 믿음



이은경 집사
(성북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일상에서 우리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있다.

“내 팔자가 그렇지.”, “인연이 아니었나 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애했했다, 삼재라 그래.”,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직분 체면이 있는데...”

익숙해서 편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신앙

의 중요한 자리를 슬그머니 바꿔 놓는다. 이 말들은 한국의 전통 종교(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의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먼’ 이론에 대한 변증뿐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전통 종교의 세계관과 그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관습처럼 쓰는 표현들 가운데 팔자, 인연, 명복이 대표적이다. 우선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을 의미한다. 사주팔자에서 온 말로, 태어난 연·월·일·시 네 가지를 ‘천간지자’로 풀어 적은 여덟 글자가 인생을 좌우한

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팔자는 인생을 이미 정해진, 닫힌 결론으로 만들고, 책임을 흐리며 기도를 체념으로 제한한다. 성경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안에 있다고 말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닫힌 운명의 ‘팔자’ 대신 열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오늘의 작은 순종이 다시 시작된다.

‘인연’은 일상에서는 특별하고 좋은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본래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발생한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에서 나왔다. 만남과 이별을 우연이나 업의 결실로 포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이 약해진다. 그러나 창조 신앙은 관계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읽게 한다. 좋은 만남에 감사하며, 관계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는 지혜로 임하기를 소망한다.

“명복을 빕니다”는 정중한 애도의 관용 표현이지만, 타 종교의 사후관을 그대로 가져와 부활의 소망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명복’은 저승에서 받는 복을 뜻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된다. 성도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하나님이 자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3-14, 벧전 1:3-4).

관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질문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전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요즘 드라마의 클리셰(Cliche)도 전통 종교적 정서를 더 익숙하게 만든다. 과거로 돌아가 운명적 인연, 다음 생을 기억하는 윤회, 떠난 이와 대화하려는 혼령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재미는 있지만, 우리의 해법을 되감기, 운명, 공덕, 교신 쪽에 익숙하게 이끈다. 드라마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좋은 선물이다. 다만 이야기는 언제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법을 무엇으로 제시하며,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작품은 즐기되, 그 세계관의 방향은 가법계라도 점검하자. 성경은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라”(살전 5:21),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롬 12:2)고 권한다. 모든 작품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작은 분별이 더해지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복음 안에서 지킬 수 있다.

오랜 시간 한국 문화에 스며든 전통 종교의 영향과 그 뿌리가 깊다. 전통 종교는 의례와

수행을 통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원형(순환)’의 시간관을 그린다.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며 균형을 찾는 상상이다. 반면 성경의 시간은 직선이다.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흐르고,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방향을 결정한다(히 9:26-28). 원형의 시간은 ‘또 한 번’을, 직선의 시간은 ‘약속의 완성을 향한 한 걸음’을 가리킨다. 그러니 우리는 반복의 원을 맴도는 대신 약속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전통 종교의 세계관을 왜 알아야 할까? 우리 속에 스며든 영향을 분별하고, 믿지 않는 이웃과 대화하며, 다음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다. 그 렌즈를 알아야 우리 안에 스며든 단어와 습관을 ‘복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 드라마와 일상의 이야기를 즐기되, 문제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 번만 더 묻자.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직선 위에 삶을 다시 올려놓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자도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한
‘온누리세계관스쿨 기초반’

양재(1~4강 온라인, 5강 대면): 9/18~10/30
(매주 목요일, 추석 연휴, OMC 주간 휴강)
서빙고(대면): 10/14~11/18
(매주 화요일, OMC 주간 휴강)

9~10월은 CGN 정기후원의 달 ① 끝까지 CGN_ 박혜원 권사 ② 함께 CGN_ 조혜련 집사

“여러분, 팍팍 후원하세요!”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집사의 유쾌한 고백

‘함께! 미디어 선교’ 비전을 따라 20년을 달려온 CGN이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9월과 10월 ‘CGN 후원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후원자가 CGN의 이름 없는 선교사다. 그 이름 없는 선교사들과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행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알리고, 유쾌한 입담으로 후원을 독려하는 CGN의 간판스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홍보대사 조혜련 집사(왼쪽)가 CGN 성경 브리핑 프로그램 '오십쇼'에서 강의하고 있다(오른쪽).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에게 최근 생긴 별명이 있다. ‘성경 바람잡이’다.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재미있게 강의하는지 누구라도 들으면 성경책을 읽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녀가 성경 바람잡이 매력을 고스란히 뽐내는 프로그램이 성경 브리핑 프로그램 ‘오십쇼’다. 오십쇼 첫 방영 이후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냐’는 반응부터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팬이라서 방송을 보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고백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 덕에 ‘오십쇼’가 CGN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마침내 발견한 ‘진짜 재미’

지금은 CGN의 홍보대사이자 성경 해설가지만, 조혜련 집사는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反)기독교 성향에 가까웠다. 그녀는 늘 ‘재미’를 찾아 헤맸다. 예수님 없는 삶은 늘 결핍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쾌락을 좇고 즐기며 살았다. 여러 종교와 수련 단체도 오갔다.

그런 그녀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겪은 가장 불쾌한 경험 때문이었다. 동료 연예인 이성미 집사 전도로 끌려간 온누리교회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이단 전문가 탁지원 소장(현대종교)이 ‘이단에 빠진 연예인들’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일본 불교에 심취해 있던 조혜련 집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였어요. 이성미 언니가 ‘오늘 혜련이가 이 자리에 왔어요’라며 저를 앞으로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던지 그대로 예배당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 불쾌했던 경험이 ‘왜 나를 위해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궁금해졌다. 그 궁금증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결혼이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는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소개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궁금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까짓것 한번 만나보자’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셨다. 조혜련 집사의 상처와 기억, 풀리지 않던 궁금증, 결혼이라는 현실의 조건을 하나로 엮어서 교회로 부르셨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녀 특유의 강한 탐구심이 발동했다. ‘성경이 대체 뭐지?’, ‘예수님이 누구지?’라는 호기심에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려운 성경 내용을 이해하려고 쉬운 기독교 서적을 다치는 대로 읽고, 강해 설교 영상을 찾아 들었다. 목회자들에게 개인 과외까지 받으며 성경통독에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재미’를 마침내 발견했다. 세상의 쾌락이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한 마음을 성경이 비로소 채워줬다.

CGN과 후원자가 만든 기적

그 ‘진짜 재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타오를 무렵, CGN과 동역할 기회가 열렸다. 조혜련 집사가 “군대에 가는 아들 우주에게 성경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오십쇼’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구약과 신약을 30분 안에 브리핑해주는 콘텐츠에 시청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이 방송 너무 재미있다’, ‘시리즈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개그우먼의 입담으로 풀어낸 쉽고 재미있는 성경 강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비신자들까지 사로잡았다. CGN과 조혜련 집사는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등 후속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아들 다음은 어머니였다. 아들이 입대한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조혜련 집사의 성경 강의를 듣는 학생이 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성경 80독을 앞두고 있을 만큼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조혜련 집사의 딸 윤아까지 합세해 3대 모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풍경까지 만들었다. 지금은 동료 연예인들과 그 재미를 나누고 있다. ‘오십쇼’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이 줄을 설 정도다.

조혜련 집사와 ‘오십쇼’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전국 교회에서 “‘오십쇼’를 보고

성경통독 붐이 일어났다”는 간증이 이어지고 있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비신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복된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 조혜련 집사는 동료 연예인 송은이 집사에게 걸려 온 전화를 잊지 못한다.

“하루는 송은이에게 ‘언니 대박이야!’ 라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던 지인이 있었는데, ‘오십쇼’를 추천했더니 며칠 만에 모두 시청하고 변화돼서 교회 나가기로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미디어 선교의 장(場)을 마련해주신 CGN과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만든 기적이에요.”

CGN, ‘순수 복음의 길’

조혜련 집사에게 ‘오십쇼’는 방송 그 이상의 의미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사역이자 동역의 장(場)이다. 그래서 ‘오십쇼’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헌신이 남다르다. 이 프로그램 원고를 조혜련 집사가 90% 이상 직접 작성한다. 그녀는 원고 하나를 쓰기 위해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해당 본문과 관련된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분석한다.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성경 해설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학 박사 과정도 수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동역은 자연스럽게 CGN 홍보대사 위촉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타 방송사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CGN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CGN이 걷는 ‘순수 복음의 길’ 때문이다. 조혜련 집사는 상업성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복음 콘텐츠를 제작하는 CGN의 매력에 깊이 빠져있다. 광고 없는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정체성은 역설적으로 성도들의 후원이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혜련 집사는 이재훈 위임목사나 전진국 대표(CGN)가 대놓고 하지 못하는 그 말을, 자신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며 유쾌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돈 내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짜게 굴지 말고, 팍팍 후원하세요(웃음)! 우리가 드리는 후원으로 ‘오십쇼’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귀한 일에 꼭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02-796-2243

전도콘서트 ‘가을, 시를 노래하다’

10월 13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본당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 하는 가을, 시를 노래하다’ (이하 ‘가을, 시를 노래하다’)가 10월 13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QR코드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티켓 가격은 좌석당 2만 원이고, 콘서트 당일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좌석은 선착순 배정한다.

‘가을, 시를 노래하다’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 등이 출연한다. 외국 가곡 ‘

Mattinata(아침의 노래), ‘Non ti scordar di me(물망초)’, ‘Parla piu piano(대부)’, ‘Erlkonig(마왕)’, 한국 가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진달래꽃’, ‘청산에 살리라’, ‘시간에 기대어’ 등을 공연한다. 강석우가 작사 작곡한 ‘이별의 시간’, ‘가을 그리고 겨울’, ‘4월의 숲속’ 등도 공개한다.

입금 계좌: 하나은행 228-910011-00605 온누리교회(전도본부회비)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가곡’ 채팅창

/ 심예은 기자 y22un@onnuri.org



‘응답하라 1985 준비하라 2025’

2025 장로수련회 9월 26일 마임비전빌리지

2025 장로수련회가 ‘응답하라 1985 준비하라 2025’를 주제로 9월 26일(금)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사역, 시무, 명예, 협동 장로 3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장로수련회에서는 온누리교회 40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AI 중

심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교회’ 특강, 박종길 목사 설교, 유혁 교수와 신무환 장로 특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11월 첫째 주 ‘열린순예배’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기획 및 실행

11월 첫째 주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열린순예배는 그동안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 지인과 동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장(場)이다.

열린순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돕

는 ‘열린순예배 <가이드북>’ (QR참고)을 순장들에게 배포한다. 열린순예배 상세한 실행 방법을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한다. A타입은 38분, B타입은 85분 소요된다. 순맞춤 전도집회 참고 영상도 볼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배우 권오중 홍보대사 위촉

배우 권오중이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9월 17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위임목사실에서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배우 권오중은 NGO 더멋진세상의 주요 캠페인에 동참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배우 권오중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어

렵고 힘든 지구촌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은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전 세계 37개국에서 현지 마을 자립을 돕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과 긴급 구호물품 지원 및 난민 케어를 하는 ‘인도적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10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양재 두란노홀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25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

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 별도 구입).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302-3482

어린이 일대일 수료자 명단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강동 김주원 나운태 ■ 남양주 김지현 김지훈 ■ 대전 김하람 김지훈 ■ 수원 김하람 김지훈 ■ 서빙고 박현하 박진성	유봉이 박혜린 유승진 유병중 이예랑 이원기 이에서 이희민 최라엘 김진아 홍로이 홍인영 ■ 부천 권민하 홍승희 박 단 김인경 배하준 박미순 ■ 수원 정성민 정요찬 조유진 변지영 ■ 수원 기운성 기정식 이아린 양인순	김운유 김정문 김지오 신혜정 김하검 손지은 박준서 박순기 박태훈 황원희 송브엘 정은미 여 준 김현영 이서연 이희진 장루아 조혜림 전성찬 선미화 조이엘 조신걸 추은우 한소라	■ 양재 강이현 안아리 권화평 정인애 김아윤 이선미 김예안 김정훈 김하운 전예서 배정민 조민아 유지아 유정희 이예준 이서연 이지안 정유선 이지윤 황진선 이하윤 허기선 이하윤 김홍식 임이레 임낙균 정재하 정리훈 조민근 김고은	최원우 전숙향 허유주 강현중 ■ 양지 구본서 구자경 김다영 김영희 정의준 박설희 ■ 인천 김보경 박미란 ■ 제주 최유빈 안여진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과정 참가자 모집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과정 (이하 어린이일대일)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토)부터 12월 13일(토)까지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이다.

참가신청은 10월 12일(일)까지 QR코드나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교재 개별 구입).

어린이일대일에서는 ‘어린이 이해, 대화법’, ‘창조신앙’, ‘사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마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4277-4429
010-4740-9749
/ 심예은 기자



결혼코칭스쿨 1기 참가자 모집

9월, 10월, 11월 마지막 주 토 대학로 이룸

결혼코칭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7일(토), 10월 25일(토), 11월 29일(토) 오후 2시 대학로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 강미향 목사(두란노부부학교 전문강사) 부부가 강의한다. 신청은 구글폼(QR코드참고)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회차

당 5만 원(전체 등록하면 할인).

결혼코칭스쿨에서는 ‘나 바로 알기, 건강한 우리를 향한 첫걸음’, ‘사랑의 향해, 믿음으로 전진’, ‘결혼의 본질과 지혜로운 결혼생활’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5059-4459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7일부터 매주 토 양재 두란노홀, 온라인

한국어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현장 강의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 강의는 9월 27일, 12월 6일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라인 강의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27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전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어 표현 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888-9901



시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 9월 21일(일) 시가현의 약 140만 명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 9월 22일(월) 실행위원회와 목회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연합하도록
- 9월 23일(화) 가스펠 나이트 및 리더십 포럼을 통해 일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9월 24일(수) 이재훈 위임목사와 통역 목사님이 한영이 되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 9월 25일(목) 봉사자, 스태프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 9월 26일(금)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권능만 나타내도록
- 9월 27일(토) 집회 기간 중에 좋은 날씨 주셔서 모든 사역이 안전하고 순조롭도록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QR코드를 찍으면 본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21일 오후 3시 30분 양재 드림홀

강남A 김용성 김진희 안희숙 이호택 지형욱	과천의왕 강준준 김귀자	진수경 한상원	양재A 강홍원 김애순 김재진 남기정
강남B 성현정 임석규 장경아	도곡 김인관 노민정 변현정	서초C 박익하	남안나 우희정 이영애 임규건 정명숙
강남C 강주영 김진향 성영숙 손명준 윤 순 이혜경	분당A 강영희 선희석 유성열 홍재희	서초D 최 원	양재B 김문규 김민정 장문영
강남D 김효은 엄성현 엄종민	송파B 김원창 김하영 박대근 변성호 서찬미 이계숙 정태선	분당B 이승엽	양재C 김민정 장문영
강남E 강윤옥	서초A 김미성 이동진 홍지연	서초B 이윤희	특설찬 초대 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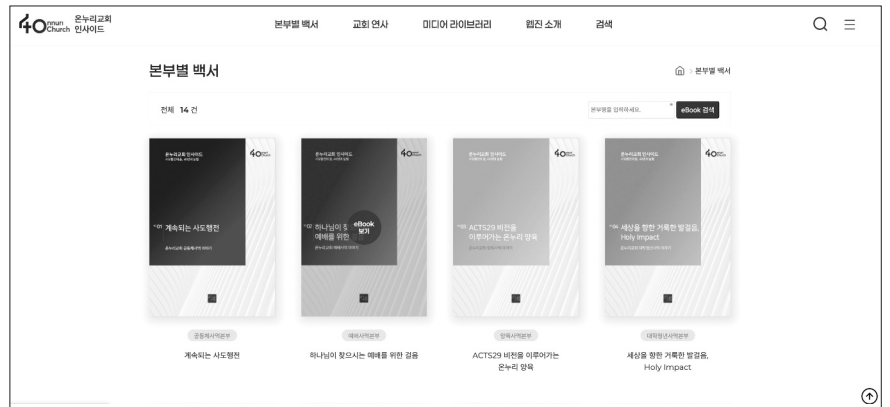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40년, 그 은혜의 기록들

‘온누리교회 인사이드’ 론칭, 40주년 기념 웹페이지 공개 예정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그 은혜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場)을 마련했다. 온누리교회 전자잡지(webzine) ‘온누리교회 인사이드’ (webzine.onnuri.org)와 40주년 기념 웹페이지(40th.onnuri-church.com)다. 40주

년 기념 웹페이지는 9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인사이드’에서는 본부별 백서, 교회 연사, 미디어 라이브러리 기능을 제공한다. 본부별 백서는 온누리교회 본부별(공동체, 예배, 양육, 대학청년, 차세대, 국제, 장애인, 가



정, 여성, 회복, 이천선교, 사회선교, 전도, 목회 행정) 역사와 사역 현황을 E-book으로 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 연사 〈온누리행전 14주년〉, 〈온누리교회 20년〉, 〈온누리교회 25주년〉, 〈온누리행전 30년〉 등도 E-book으로 읽을 수 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각 본부별 자료실로 행사 및 사역 사진과 동영상, 문서, 유튜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연도별, 매체별 원하

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0주년 기념 웹페이지에서는 40주년 축제 캠페인 주요 일정 안내, 추억의 사진전, 온누리교회 40주년 영상, 온누리사역축제(OMC) 자료, 온누리교회 원로 성도 간증 등을 볼 수 있다.



웹진 QR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크리스천 학부모님과 교사들께

어린이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아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로 이끌기를> 저자)

누구나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어른이 되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는 듯합니다. 어리고, 키가 작고, 뭐든 서툴고 실수만 하는 게 어린이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어린이가 같은 사람들의 것(마 19:14)’이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몇 가지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반 한 아이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합니다. 저는 걸어서 출근하는 터라 건널목에서 그 아이를 가끔 마주칩니다. 어느 봄날, 건널목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OO야,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써야 안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다른 애들도 다 안 쓰고 다녀요”라고 말하며 획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이야기했을 때는 “헬멧, 그거 어디에 있는데요?”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집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야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교실에서도 몇 번 더 헬멧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6월 어느 아침, 건널목에서 다시 만난 아이는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듣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제 딸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7살 때 엄마가 자세가 바르지 않으

면 나중에 할머니 될 때 허리가 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연극 볼 때, 허리 펴는 데 신경 쓰느라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말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엄마의 말을 온몸으로 새겨듣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신념 삼아 지키며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에게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요.

어느 날은 학교급식으로 소시지가 나왔습니다. 배식을 받는데, 소시지 배식을 담당하던 여자아이가 저에게 소시지를 무려 6개나 주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에게는 2개씩 주는 건데 말이지요.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고마워”하고 돌아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좋은 것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기 일이 다 끝나지 않아도 친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보통의 많은 어른은 자기가 더 얻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때로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도 말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보석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아이는 가까이 변화하고, 가진 것을 잘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천국 입장권을 받은 어린이를 항상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특권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의 보석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배우며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QR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묵상

칠십 단상(斷想)

기대 속에 시작했던 환갑이 불과 수년 전 같은데, 벌써 칠십이다.

나이가 들며 삶은 정돈되고, 평온하고, 너그러워질 줄 알았다.

웬걸!

강력한 폭풍이 분다. A급이다. 허리가 꺾여 부러질 듯하다.

그러하건만, 손상된 조직과 찢어진 가슴을 회복시키는 능력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75세, 80세에도 그러할까?

넘어지는 일도 큰일이지만,

심장이 잠시 불규칙적으로 뛰어도, 숨이 일시 막히어도,

몸은 요동치며 뒤집어진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아니, 30분만 방광을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머리에는 식은땀이 나며 난리굿이다

우리 몸에 핵이 있는 모든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 당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감에 경의롭기까지 한데,

하물며 보고, 듣는 것은 물론이고,

코 위로 지나는 바람결을 느끼는 정말 기적이다.

칠십을 맞이함이 감사하고, 감회가 깊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며,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눈앞의 크고 작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을 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리.

그간,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믿음과 희망 속에 함께 축하해야지.

이 땅에서의 계절은, 들판의 야생화처럼 잠시 피고 지며,

그리고 있었던 자리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시작되는 천국은 C.S. Lewis의 <나니아 연대기>

그 이상으로 무척 아름다운 장소임에 분명하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칠십을 맞이하여 주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의 ‘남은 경주’를 흔쾌히 완주하자.



/ 성주명 장로(여의도공동체)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문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업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우에다 히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신 김용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대광 김대용 김태완
김한국 김대철 김홍주 노치형
럼보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진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환상
박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도
송재호 신기성 신경훈 신대중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부엘 양성민 양진별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율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빈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보솔 조은광
조현수 진진미 최대용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해럴드김 하원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전임)

김현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목 임동현 정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보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동영 김태주 김혜경 김도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생두애뉴 양현수 윌샬레이
클스폴츠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재선 정요한
정진모 제인랑 존페이즈 최정현
허효경 황연선

☛전도사(파트)

강영환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애람 권평화
권형성 김가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명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광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은 김현철
김현주 김홍미 김하목 나가노
마사토 남 헤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시은 박요한 박용민 박유진
박의력 박중일 박찬미 방예민
방자아 배유주 배순필 서아연
서은규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신나래 신호철 심은섭 안무택
영준경 양종현 양태진 오성민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승희 유석현 유요한 유지는
유 찬 윤길문 윤조현 윤종원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만석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희 이시하라 이은찬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이형준 임경미
임노완 장건우 장성진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상원 정영연 정영현 정은영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기연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운식

조준기 지석구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규중 최민정 최성진
최 은 최혜정 하예림 한은태
허영은 홍세나 홍슬기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용성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환 권철중 김경철 김관근
김남식 김남일 김두진 김명중
김명철 김명훈 김병욱 김상식
김석익 김선래 김진택 김성목
김성순 김상민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현규 김원준 김원철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중진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준홍 김진국
김정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경 김형식 김현중
나상권 노재현 류지영 문성기
문장근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석봉 박영익 박봉래
박상준 박성복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박형민
박홍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신만인 신창기 신우권 신학철
신현중 신상달 신재구 신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동현 안성영
양태준 안태환 안성진 양재수
양준경 양태진 양성민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영 유의준 윤석우 윤영카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현 이국주 이기증 이기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욱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은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원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규 정수엽
양 양 양성철 양준홍 양종진
양현열 오 병 오범규 오상록
오승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광우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성구 유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남식 이동욱
이병국 이봉익 이상형 이상도
이상률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완 이소배
이성진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현 이재광 이재춘 이장규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진주
이봉우 이태원 이학일 이혜남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원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정규 정수엽
양 양 양성철 양준홍 양종진
양현열 오 병 오범규 오상록
오승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광우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성구 유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남식 이동욱
이병국 이봉익 이상형 이상도
이상률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완 이소배
이성진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현 이재광 이재춘 이장규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진주
이봉우 이태원 이학일 이혜남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백종욱 서성현 정강무 정대서
서성현 손기태 송준환 송종환
송준환 송태웅 송기선 신동기
김기택 김진아 김세일 김우석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해외 온누리교회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해외 온누리교회

합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걸 김정한 김지형 김 찬
김혜정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문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일곽희준 구지엽 권순형
권오수 권오경 권혁은 금세재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병세
김영호 김우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철 김선호 김성호
김성규 김성숙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희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김지하 김지현 김지홍 김강식
김정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만 김홍조 김준구 김준성

☛성가사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준 고영주 강병철 권진성
곽대



CGN 함께! 미디어선교

후원자님의 소중한 헌금은
CGN을 통해 선교 현장에 전달되고,
열방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선교지에
복음의 통로 CGN을 보내주세요.

CGN과 함께 미디어선교에 동참하는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QR



중액후원 QR

